

2025 몽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한-몽 EPA 체결에 따른 양국 교류 확대 전망	4
나. 러시아 대통령 방문 및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협력 확대	5
다. 몽골 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 다각화 노력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2. 시장 분석	17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7
나. 교역	18
다. 투자	19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2
가. 교역	22
나. 투자 진출	24
다. 협력 유망 분야	25
III. 진출전략	27
1. PEST 분석	27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28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33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34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5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5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5년 몽골 경제성장률은 6%대로 전망, 2024년보다 상승 기대

- 몽골 경제는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2024년 광업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성장해, 상반기 기준 5.6% 성장
 - 구리정광, 석탄, 철광석 채굴의 지속 증가는 2024년 몽골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
 - 또한, 광물 수출 증가와 수입품, 물류 운송의 활성화로 인해 운송업 부문이 전년 대비 27.4% 성장하여, 광물 다음으로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부문으로 평가받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몽골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6.4%, 국제통화기금(IMF)은 6%로 각각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3.23	3.29	3.35	3.42	3.45	3.50	3.57	3.62
명목GDP	십억 달러	13.2	14.2	13.3	15.3	17.1	20.3	23.5	25.3
1인당 명목GDP	달러	4,171	4,450	4,128	4,657	5,126	5,875	6,181	6,541
실질성장률	%	7.6	5.5	-4.4	1.6	5.0	7.2	6.4	7.6
실업률	%	7.8	10.0	7.0	8.1	6.7	5.4	5.2	5.1
소비자물가상승률	%	8.1	5.2	2.3	13.4	13.2	12.2	7.0	6.9
총수출	백만 달러	7,011.8	7,619.6	7,576.3	9,241.1	12,538.6	15,186.9	18,194.6	18,839.8
(對韓 수출)	"	21.2	27.8	21.4	32.9	277.4	194	156.4	160.1
총수입	"	5,874.8	6,127.5	5,298.9	6,845.5	8,704.4	9,250.2	11,625	13,368
(對韓 수입)	"	262.2	267.0	235.7	294.2	424.6	476.1	566.4	570.4
무역수지	백만 달러	1,137	1,492.1	2,277.4	2,395.7	3,834.2	5,936.6	6,707	6,946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472	2,660	2,750	2,849	3,141	3,466	3,380	3,37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37	1.27	0.26	1.13	0.76	0.9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1.73	24.43	17.19	21.39	28.5	30.6	32.1	34.0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ADB, WB, IMF, KITA, 몽골 중앙은행, 몽골 통계청, 몽골 관세청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한-몽 EPA 체결에 따른 양국 교류 확대 전망
- ※ 10년 만에 Fitch Ratings 기관에서 B+ 평가, FDI 증가 및 경제성장 기대
- ※ 러시아와의 첫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예정으로 양국 교류 확대 전망

가. 한-몽 EPA 체결에 따른 양국 교류 확대 전망

□ 한-몽 EP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까지 진행 완료

- **교역·투자 등 경제교류 강화 흐름 속 지난 2023년 2월 몽골 어윤에르덴 (Oyun-Erdene)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공식 추진기로 합의했고, 2023년 12월 한국에서 1차 협상, 2024년 5월과 9월 몽골에서 2, 3차 협상 진행**
 - 양국은 상품, 서비스뿐 아니라 투자, 경제·개발 협력,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협상을 추진 중인바, 양국의 기업과 관련 협·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윈-윈할 수 있는 협상 결과 기대

〈한-몽 EPA 실무 협상 개요〉

- 일시/장소 : '23.12(서울, 1차), '24.5(울란바토르, 2차), '24.9(울란바토르, 3차), '24.11(서울, 4차)
- 협상 분야 : 상품(시장 개방, 원산지 규정 등), 서비스(통신, 금융 등), 공공 조달, 투자, 경제·개발 협력, 디지털 무역, 분쟁 해결, 지적재산권 등 16개

• **한국은 몽골의 4위 교역국**

- 한국과 몽골 양국 교역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바, 교역량 확대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타결은 양국의 교역 확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나. 러시아 대통령 방문 및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협력 확대

□ 몽골은 러시아와 첫 무역협정 체결 예정

- 몽골과 러시아는 192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 구축
 - 몽골과 러시아는 1993년 ‘몽-러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2019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
- 2023년 기준 러시아는 몽골의 제4위 수출국이며, 제2위 수입국
 - 러시아는 몽골의 제2의 교역 대상 국가로 의존도가 높으며, 양국 교역 규모는 약 25억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은 약 10% 수준
 - 2023년 기준 몽골의 對러시아 수출은 1억 1,27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0.7%, 수입은 23억 8,627만 달러로 25.8%의 비중을 차지
- 2016년부터 논의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예정
 - 몽골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2016년 공동연구실무그룹을 제안하고 2020년 10월 연구 시작
 - 몽골과 러시아 교역 비율은 무역 역조가 심한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가죽, 캐시미어, 육류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반영을 희망

□ 푸틴 러시아 대통령, 5년 만에 몽골 방문

- 할흐골(Khalkh gol) 전투 85주년 기념 행사를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9월 3일에 몽골 공식 방문, 양국의 전력 협력에 관한 다양한 협정에 서명
 - 몽골 에너지부 장관 초이질수렝(B. Chojilsuren)과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치위레브(S. E. Tsivilev)는 울란바토르시의 발전 및 난방 부문에 대한 기술 조사 및 설계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
 - 또한 석유 제품 공급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러시아가 내수시장 상황에 따라 2023년에 부과한 석유 제품 수출 제한에서 몽골*이 면제될 수 있도록 조정
- * 몽골은 석유 제품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9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음
- 울란바토르 신공항의 항공 연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몽골 기후변화부 장관 오동토야(S.Odontuya)와 러시아 자원환경부 장관 코즈로프(A. A. Kozlov)는 에기인강(Egiin gol)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환경 공동 평가를 통해 양국 정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 셀렝게(Selenge) 강 및 바이칼(Baikal) 호수의 환경 보호와 관련된 협력,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로드맵과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 몽골의 보건부 장관 몽흐사이항(T.Munkhsaikhan)과 러시아 소비자 보호, 인간 건강 감독청의 국장 포포와(A. Y. Popova)는 2018년에 체결된 협정을 갱신. 이번 협정 갱신으로 몽골-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인수공동감염병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정보 교환, 역할 및 미생물학 연구를 위한 전문가 교류,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등이 가능해졌다고 전함

- **푸틴 대통령의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해 가스, 석유, 원자력 등 에너지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몽골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몽골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2024년 말까지 자유무역 임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이 협정이 체결되면, 몽골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가축 관련 375종의 제품이 전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 이러한 혜택은 몽골 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 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2)' 프로젝트는 몽골을 경유하여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몽골의 경제와 에너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전망. 현재 환경 영향 평가와 정부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완공되면 에너지 통과국으로서 몽골의 전략적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

다. 몽골 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 다각화 노력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신투자법 개정 등 다각적 노력

- **2015년 이후 몽골 경제성장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몽골 중앙은행에 따르면, 1990~2024년 상반기 기준 몽골의 외국인 투자 유치 누적 실적은 317억 달러로, 이 중 광업은 76%, 무역유통업은 6%, 기타 분야는 18% 차지
- 최근 3년간 몽골 전체 사업체에서 납부한 세금의 23%(2.63조 투그릭)는 외국인 투자법인 몫. 하지만 2022년에는 약 16%(2.4조 투그릭)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외국인 투자 자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 따라서 몽골 정부는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 **2013년 이래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투자 유치 확대 효과는 미미**

- 2013년 투자법 개정 이래 총 11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투자자의 불만 확대 및 광업 외 투자 유치는 확대되지 않는 상황
- 신투자법 초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120여 개 기관으로부터 695건의 의견을 수렴
- 현재 투자법에는 외국인 1인당 최소 투자액이 10만 달러로 정해져 있으며, 이번 신투자법 초안에는 분야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신투자법 개정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규 반영 예정**

- 투자 금지 및 제한 관련 조항 삭제
- 투자자 보증 관련 사항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개선
- 투자자 권리 보호 및 불만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투자자와 정부 간 투자 분쟁을 국제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할 권리 제공
- 투자 보호 및 지원 의무를 정부의 모든 기관에 의무화하여 반영
- 세금 혜택 관련해서는 세법으로 조정할 것을 반영
- 정부에서 수행하는 검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각종 인허가 서류 취득 요건 간소화 및 온라인 발급 조치

• **국가 핵심 산업 분야 중 하나인 광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투자 환경 개선 노력 필요**

- 몽골 광중공업부에서는 내외국인 투자자 이익 보호, 광물 탐사·채굴·사용권 발급 절차 간소화, 대형 광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녹색 개발 정책 시행 계획
- 몽골 정부는 광업 투자 시 광물 채굴뿐 아니라 가공공장과 함께 개발 및 투자유치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 채굴권·사용권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으로 광업 분야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인민당 집권 3기로 경제·산업 관련 정책적 일관성 및 연속성 기대
- ※ '21년부터 플러스 전환에 이어 '24년에는 6%대의 경제성장 예측
- ※ 중국의 광물 수요 확대에 따른 광산업 성장이 예상돼 관련 소비재 수입 활성화 예상

가. 정치 환경

□ 안정적인 정치 환경

- 2022년 헌법 개정 통해 국회의원 수를 76석에서 126석으로 확대
 - 2023년 5월 31일, 국회의원 수를 126석으로 하며, 48석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 인민당(Mongolian People's Party) 집권 유지('24년 총선 결과)
 - 몽골 인민당은 68석(54%)을 확보하여 과반 의석으로 집권이 유지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2020년 총선에서 의석의 8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임
 - 제9대 총선에는 총 19개 정당과 2개 정치 연합, 무소속(개인 출마자) 42명을 포함한 1,341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투표율은 69.3%를 기록함
 - 몽골 제1의 야당인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42석(33%), 훈당(HUN Party)은 8석을 차지

〈주요 정당의 공약〉

정당명	주요 공약
인민당	○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물가 유지 ○ 여성 및 청년 대표성 확대 ○ 광산업 투명성 제고 및 환경 보호
민주당	○ 고용 환경 개선 및 근로자 보호 ○ 부패 해결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 교육과 보건 서비스 개선
훈당	○ 여성 취업 확대 및 근무 유연성 개선 ○ 광산업의 투명한 운영 및 수익 분배 ○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자료: 현지 언론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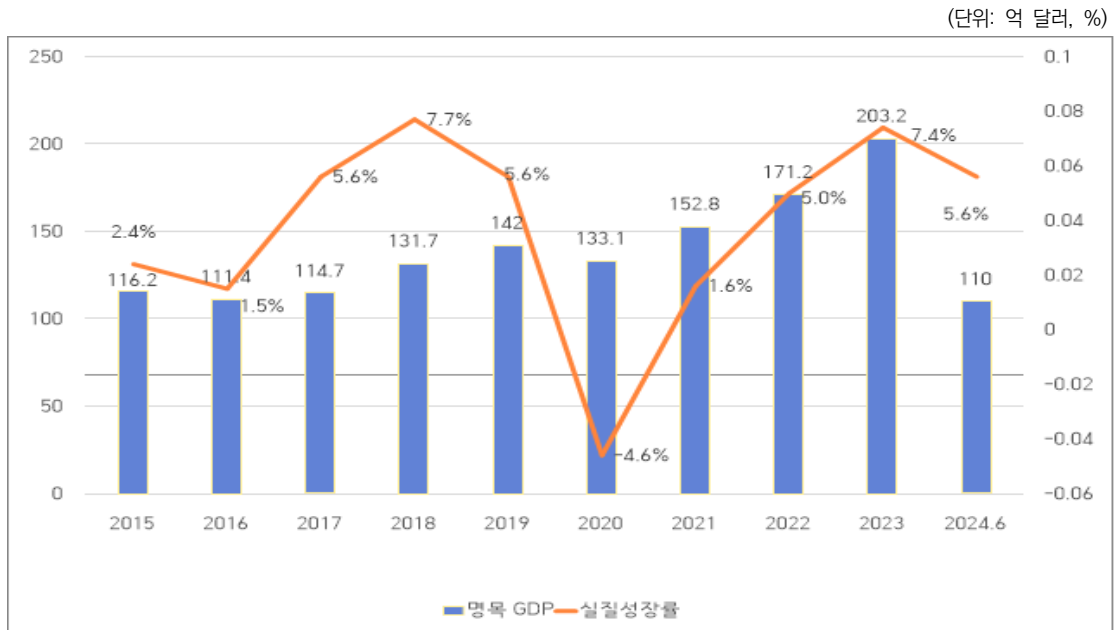
나. 경제 환경

□ 몽골 경제 개요 및 대외경제 지표

• (경제성장률) 몽골 경제는 2023년 7.4%의 성장 기록에 따라 2024년에도 긍정적인 전망

- 몽골 경제는 2011년 17%의 고성장 기록한 반면 2020년에는 -4.6%를 기록하는 등 하향세를 보였으나, 광물 시세 및 중국의 광물 수요 확대에 따라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
- 2023년 몽골 GDP는 203억 달러를 기록하고 실질성장률은 7.4%로 나타났으며, 이 중 4.4%가 광업과 운송업의 성과에 따른 것으로 천연자원 부국인 몽골에서 광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광업 기반으로 경제 다변화 필요
- 2024년 상반기 기준 5.6%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 중 광업과 운송업의 기여율이 2.8%로 나타남

〈2015~2024.6월 GDP 성장률 동향〉



자료: 몽골 통계청

- **(물가)** 2021년 13.8%, 2022년 13.2% 등 몽골 물가는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및 러-우 사태로 인해 급상승
 - 2023년에는 7.9%로 전년 대비 대폭 하락했으며, 광물 수출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 및 환율 안정이 수입 공산품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
 - 2024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5.1%까지 하락하여 전년 동기(10.6%) 대비 5.5%p나 둔화되었고 몽골 정부는 향후 물가상승률을 2025년 5~7% 수준으로 계획
- **(외채)** 2023년 기준 몽골의 총외채 잔액은 345억 6,9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억 2,500만 달러, 3.7% 확대
 - 몽골 전체 외채 중 정부부채는 81억 510만 달러,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약 40% 추정
- **(외환보유고)** 몽골 외환보유고는 2022년 들어 연속 8개월 감소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3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52억 달러대 기록
 - 코로나19 및 러-우 사태로 인해 수출입 지체로 외환보유고는 2022년 26억 달러대로 감소하였으나 광물 수출 확대 등으로 2024년 상반기 기준 외환보유고는 48억 3,880만 달러를 기록
- **(금리)** 2023년에는 13%를 유지, 2024년 11% 유지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6%까지 하락, 2022년에는 5차례 인상되고 2023년에는 13%를 유지함
 - 2024년 3월과 5월에는 1%씩 인하, 몽골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이유를 세계 주요 은행 통화정책 영향으로 설명

다. 산업 환경

□ 산업 개요

- **자원 부국인 만큼 광업 부문 비중이 가장 높음**
 - 2023년 기준 GDP 중 산업 부문별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광업(28.1%), 기타 서비스업(23.2%), 도소매업(10.4%), 농업(9.9%), 제조업(6.3%) 등 순으로 상위 5개 부문이 전체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음
 - 2023년 GDP 성장률은 7.4%를 기록하였으며,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문은 역시 광업 2.6%로 나타나고, 다음은 운수 및 창고업 1.8%로 전년 대비 23.4%, 39.6%로 각각 성장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3년 몽골 분야별 GDP 기여도 및 비중〉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기여도	비중	기여도	비중	기여도	비중
GDP	4.8	100.0	7.4	100.0	5.6	100.0
농업	1.7	13.2	-1.3	9.9	-3.9	9.1
광업	-1.6	24.3	2.6	28.1	1.8	29.6
제조업	0.5	7.2	0.4	6.3	0.4	4.9
전기·가스·증기·환기	0.1	2.0	0.1	1.9	0.2	2.0
건설업	0.2	3.6	0.1	3.2	0.3	1.5
도소매업	0.9	9.5	0.8	10.4	0.8	8.1
운수 및 창고업	0.1	4.0	1.8	5.6	1.0	5.9
정보통신업	0.2	1.9	0.5	1.9	0.6	1.7
기타 서비스업	1.4	23.4	1.7	23.2	2.1	27.0
순세금	1.4	10.9	0.8	9.5	2.3	10.3

자료: 몽골 통계청

□ 광업

• 광물 자원 부국인 몽골은 자원 수출과 광산 분야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 추진

- 2023년 기준 광업 부문은 GDP의 28.1%, 산업 생산의 65.3%, 총수출의 86.6% 차지하는 등 몽골 경제성장의 원동력
- 또한 광업 총생산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 기준 19.8조 투그릭으로 전년 대비 59.7%로 대폭 증가했고 실질성장률은 23.4%로 나타남
- 몽골은 3C(Coal, Copper, China)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니며, 2023년 對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26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석탄 수출액은 24억 달러 증가
- 2023년 기준 전체 석탄 수출의 99.3%, 구리 수출의 99%를 중국으로 수출했으며, 對중국 수출액이 몽골 전체 수출의 91.2%를 점유

〈최근 5년간 광산업 동향〉

(단위: 조 투그릭, %, 백만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광업 총생산량	8.7	10.7	12.4	19.8	11.1
GDP 중 광업 비중	13.8	13.6	24.3	28.1	29.6
실질성장률	-9.9	0.8	-15.3	23.4	15.4
산업 생산 중 비중	55.7	56.7	58.5	65.3	71.9
전체 수출액 중 광물 비중	69.4	81.3	84.1	86.6	88.9
전체 광물 수출액	5,256	7,510	10,543	13,146	7,016

자료: 몽골 통계청

• 석탄·구리·철광석·금 4대 광물의 수출에 몽골 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상황

- 2023년 기준 몽골의 전체 수출액은 151.9억 달러이며, 86.6%에 해당하는 131.1억 달러가 광물 수출을 통한 소득임
- 석탄·구리·철광석·금 4대 광물은 수출금액 기준 광물 수출 중 96.9%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석탄은 최대 수출 광물로서 67.9%를 차지
- 석탄 채굴량은 2019년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1년에는 3,369만 톤까지 생산량이 감소했고, '22년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729만 톤, '23년에는 8,526만 톤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28.6% 증가

〈최근 3년 몽골 광물별 생산량 및 수출액〉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생산량	수출량	생산량	수출량	생산량	수출량
석탄(천 톤)	37,294.7	31,821.6	85,262.3	66,702	47,805.0	40,620.7
원유(천 배럴)	2,565.4	2,605.7	4,888.9	4,730.4	2,130.2	2,065.1
동 정광(천 톤)	1,189.8	1,453.3	1,395.3	1,524.8	734.6	785.2
몰리브덴 정광(톤)	5,914.2	6,451.1	5,643.7	6,364.3	2,950.5	3,211.0
금(kg)	19,382.7	19,660.3	14,854.8	11,733.6	4,234.5	5,048.3
형석(천 톤)	135.8	387.7	222.4	1,087.8	186.3	583.8
철광석(천 톤)	7,659.9	4,732.2	5,334.8	5,712.9	4,599.1	3,596.2
아연 정광(천 톤)	400.1	141.2	402.9	150.4	252.0	62.1

자료: 몽골 통계청, 관세청

□ 농업

- 농업은 몽골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농축산업 비중은 2000년에 27% 수준에 달했으나 이후 축산업과 분리하여 집계한 이후 농업 부문은 10%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농업 부문 생산액은 1.9조 투그릭(약 6억 1천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

〈최근 5년 몽골 농업 생산규모〉

(단위: 백만 투그릭,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업 생산액 (증감률)	872,323 (5.7)	908,918 (4.2)	1,470,708 (61.8)	1,478,695 (0.5)	1,953,373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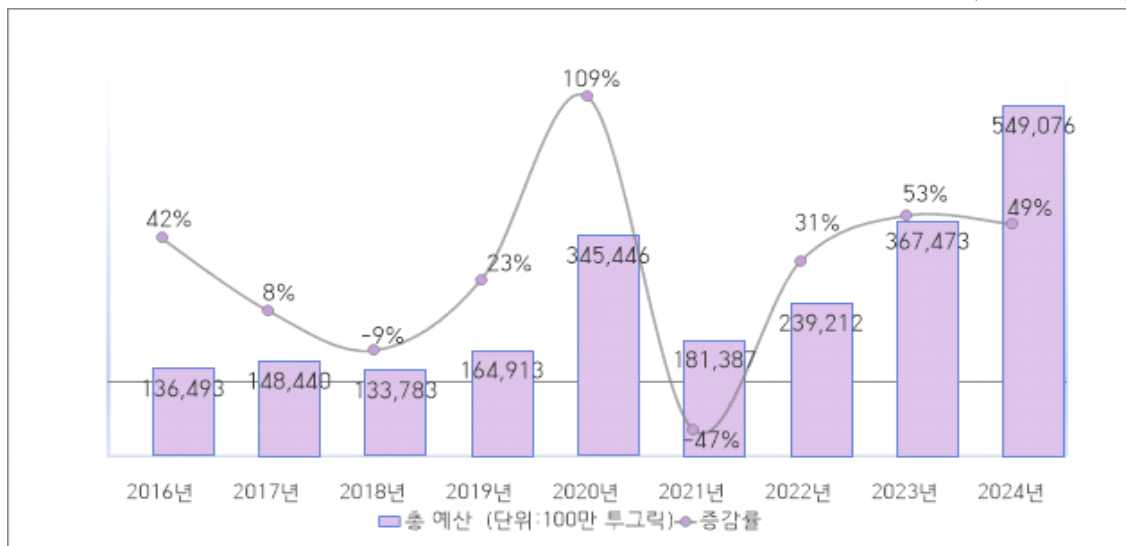
자료: 몽골 통계청

• 농업 부문 지원 정부 예산 규모는 4년 전 대비 3배 확대

- 몽골 정부의 농업 부문 지출 예산 규모가 2021년부터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농업 부문 지출 예산 규모는 5,490억 투그릭으로 4년 전 대비 3배로 확대됨. 향후 각종 농가 및 농산물 지원 정책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최근 3년 몽골 분야별 GDP 기여도 및 비중〉

(단위: 백만 투그릭)



자료: 몽골 재무부

• 2023년 기준 농업 부문 기업 수는 3,416개사로 전년 대비 6.8% 증가

- 전체 농업 기업 중 직원 수 1~9명 기업의 비중이 91%로 나타나며,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12개사로 확인
- 농업 부문 종사자 수는 29만 명이며, 이는 몽골 전체 인력 중 약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0~49세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 도소매업

• 몽골 GDP 중 제조업의 비중이 6%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

- 2023년 기준 몽골 GDP 중 도소매업 비중이 10.4% 수준으로 제조업보다 높은 비중 차지
- 반면,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생활소비재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몽골의 유통업은 전 세계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6.8% 성장

〈최근 5년간 도소매업 동향〉

(단위: 조 투그릭, 천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GDP 중 유통업 비중	10.5	10.9	9.5	10.4	8.1
실질성장률	-12.5	5.8	10.1	6.8	6.8

자료: 몽골 통계청

• 외국계 유통 브랜드의 몽골 진출에 따라 유통업 매출액 급증세

- 몽골에 2016년부터 외국계 유통 프랜차이즈(E-mart, Absolute, CU, GS25, Tourten, Carrefour) 진출로 유통업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23년 기준 유통업계 총매출액은 65조 투그릭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하였고, 유통 점포 수 확대에 따라 고용인원도 전체의 12%로 증가
- 2016년 기준 도매업과 소매업 비율이 비슷했으나 점차 역전되는 추세로 도매업의 비중은 2016년 46% 수준에서 2023년 41%로 하락한 반면, 소매업은 54% 수준에서 59% 수준으로 상승

〈몽골 유통업 매출 및 고용자 현황〉

(단위: 10억 투그릭, 천 명)

구분	2016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통업 매출액	16,773.6	29,118.6	28,891.2	38,783.6	52,522.7	65,040.9
도매업	7,820.9	10,595.1	10,538.6	15,037.4	20,975.0	27,026.5
소매업	8,952.7	18,523.6	18,352.7	23,746.2	31,547.8	38,014.3
고용자 수	172.7	160.4	166.6	149.1	146.2	163.7

자료: 몽골 통계청

라. 정책·규제 환경

□ 몽골 정부, '2024~2028년 실행 계획' 초안 발표

• 향후 몽골 4개년 계획의 시작

- 동 계획안은 30년 장기 개발 정책(VISION-2050)과 10년 중기 개발 정책(신부흥 정책)을 기반으로 총선(2024.6월)에서 주요 정당(특히 몽골 인민당, 민주당, 훈당)의 총선 공약 중 특정 조항을 취합하여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함
- 2024~2028년 실행 계획은 ① 지역개발정책, ② 인간개발정책, ③ 경제정책, ④ 인권 존중을 위한 거버넌스 정책으로 분류
- 경제정책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비즈니스와 투자 환경 개선, 민관 파트너십 강화, 경제 다변화와 수출 지향적인 경제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밝힘

• 12개 실현 목표의 달성 여부

- 2024~2028년 실행 계획 초안에 빈곤, 경제, 부정부패 등을 12개의 주요 정책 목표 제시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12개의 주요 목표

- | | |
|---------------------|------------------------|
| 1. 인간개발지수 10계단 향상 | 7. 경제자유지수 10계단 향상 |
| 2. 빈곤율 2배 감소 | 8. 기업환경 평가지수 3.5점으로 개선 |
| 3. 1인당 GDP 1만 달러 도달 | 9. 글로벌 혁신 지수 10계단 향상 |
| 4. 경제성장률 6% 이상 유지 | 10. 거버넌스 지표 평균 10계단 향상 |
| 5. 인플레이션 5% 미만 유지 | 11. 좋은 국가 지수 10계단 향상 |
| 6. 신용등급의 유지 | 12. 부패인식지수 30계단 향상 |

• (ESG) 기후변화, 대기오염 대응,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국민 캠페인을 2021년부터 시행

- 이 국민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총 4,2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으며, 후속 관리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캠페인 목표인 10억 그루 중 절반 이상을 몽골의 21개 대형 광산 업체들이 담당할 예정이며,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 6억 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 (현재까지 Erdenet mining Corporation SOE는 800만 그루, Usukh Zoos LLC는 150만 그루, Boroo Gold LLC는 92만 그루, Mongolroostsvetmet SOE는 59만 그루를 심은 것으로 언론 보도)
- 참여 기업들은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 몽골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유럽연합의 Forest Partnership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으로 시작한 다양한 활동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발표
- ※ 2026년에 제17회 UN '사막화 방지 협약' 총회를 몽골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2026년을 '국제 유목민 및 목축업자의 해'로 지정하는, UN 총회 결의안을 제안하여 승인받은 상태임

2. 시장 분석

※ 몽골 주요 광물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전체 교역액은 202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1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하여 2024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K-문화 확산에 따른 K-프랜차이즈 등 소비재에 이어 한국의 서비스업 수요도 증가세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몽골은 인구 약 350만 명의 내륙국가로 내수시장은 작지만 젊은 노동력 보유 및 러시아·중국 등 넓은 배후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

• 몽골 인구 중 34세 미만 인구 비중은 약 66%로 젊은 국가임

- 몽골 인구의 평균연령은 28.5세로 비교적 젊은 나라이며, 전체 인구 350만 명 중 34세 미만 인구는 약 230만 명으로 확인
- 노동 인력의 월평균 임금은 2023년 기준 188만 투그릭(약 588달러)으로 평균 임금도 낮아 노동력을 활용한 시장 진출도 고려해볼 만한 시장임

• 몽골은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시장

-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며, 몽골 수출의 약 92%, 수입의 약 41%를 차지하는 반면, 러시아는 몽골 전체 수입의 약 26%를 차지하는 2위 교역국임
- 이들 두 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 시장을 통해 러시아·중국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으로도 볼 수 있음

□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정부는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제조업, 에너지산업, 운송업, 관광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

• 광업은 몽골 GDP의 28.1%, 수출의 86.6%, FDI의 74.4% 각각 차지

-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국제 광물 가격 및 중국의 광물 수요에 민감하며, 가격이 높고 수요가 많았던 2011년에는 17.3%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인 반면, 국제 광물 가격의 급락에 따라 2016년에는 1.5% 성장에 그치는 등 광물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나. 교역

□ 몽골 수출입 동향

- 2023년 몽골의 교역규모는 244억 3,71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2024년에도 증가 전망

- 몽골 대외교역은 2020년부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수출액은 151억 8,6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수입액은 92억 5,0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각각 증가
- 2024년 상반기 기준 교역액은 132억 6,4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며, 이 중 수출액은 4.4%, 수입액은 25.8% 증가해 2024년 연간 교역규모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최근 5년 몽골 교역 현황〉

(단위: 백만 US\$,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수출	금액	7,576	9,241	12,538	15,186	7,886
	증감률	-0.6	22.0	35.7	21.1	4.4
수입	금액	5,298	6,845	8,704	9,250	5,378
	증감률	-13.5	29.2	27.1	6.3	25.8
전체	금액	12,875	16,086	21,243	24,437	13,264
	증감률	-6.3	24.9	32.0	15.0	12.1

자료: 몽골 통계청

- 중국, 러시아, 한국이 몽골의 주요 교역국

- 몽골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전력, 석유, 소비재 및 생필품 수입 의존도가 높음. 최근에는 제3의 이웃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2023년 수출 비중은 91.8%, 수입 비중은 40.8%이며, 2024년 상반기 기준 수출액은 73억 달러(92.6%), 수입액은 21억 8,255만 달러(40.6%)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31.1% 증가.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구리, 철광석, 원유 등 광물인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은 화물차, 철강 제품, 건설중장비 등
- 한국의 경우 3위 수출국이고, 4위 수입국. 2024년 상반기 기준 수입액은 2억 2,1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 증가. 몽골의 對한국 주요 수출 품목은 몰리브덴, 울(wool)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 담배, 화물차, 건설중장비, 의약품 등

〈몽골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US\$,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6월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6월
	전체	12,538,589	15,186,897	7,886,214	전체	8,704,394	9,250,248	5,378,428
1	중국	11,061,576	13,940,183	7,300,704	중국	3,072,235	3,773,277	2,182,555
2	스위스	1,030,719	666,311	340,933	러시아	2,611,465	2,386,277	1,363,267
3	한국	127,495	126,443	20,894	일본	674,255	716,335	515,497
4	러시아	93,366	112,709	55,194	한국	424,649	415,159	221,650
5	이탈리아	88,058	98,995	24,639	미국	266,073	280,802	191,407
6	미국	9,895	36,553	17,543	독일	182,827	211,359	112,015
7	이란	7,995	34,900	22,987	베트남	84,998	114,805	52,167
8	타이완	327	26,484	108.1	튀르키예	108,345	95,906	51,790
9	카자흐스탄	7,823	22,020	1,622	폴란드	97,703	94,380	600
10	독일	25,976	14,695	2,042	프랑스	150,907	93,429	57,379

자료: 몽골 통계청

□ 진입 장벽

• 몽골은 개방경제를 지향해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음

- 몽골은 제조 기반이 약한 관계로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차량·담배·주류제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거나 수입품에 대한 현지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조국에서의 서류로 수입절차 진행이 가능함

다. 투자

□ 對몽골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2022년 몽골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 대비 15.2% 증가한 25억 400만 달러를 기록
- 연평균 약 20억 달러대를 유지한 몽골 FDI는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2년 연속 증가했고, 2023년에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최근 5년 몽골 FDI 유입액 및 증감률〉

(단위: 백만 US\$,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몽골	2,174 (45.5)	2,443 (12.4)	1,719 (△29.6)	2,173 (26.4)	2,504 (15.2)

자료: UNCTAD(Flow 기준)

- (산업별) 주로 광업 중심의 FDI가 유입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분야인 것으로 확인
 - 광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약 7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5.6%), 금융보험업(5.5%), 건설업(2.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 순임

〈최근 3년 몽골 주요 산업별 FDI 현황〉

(단위: 백만 US\$,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6,281.8	100.0	28,521.4	100.0	30,587.4	100.0
건설	881.0	3.3	852.8	3.0	868.5	2.8
교육	16.7	0.06	17.0	0.06	17.8	0.06
제조업	341.5	1.3	420.6	1.5	423.8	1.4
도소매업	2,085.0	7.9	1,690.4	5.9	1,713.6	5.6
숙박 및 외식업	214.4	0.8	123.9	0.4	122.6	0.4
정보통신업	157.4	0.6	150.8	0.5	211.1	0.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18.4	1.2	415.3	1.4	517.8	1.7
금융 및 보험업	1,142.0	4.3	1,263.5	4.4	1,682.3	5.5
운수창고업	209.9	0.8	228.3	0.8	227.5	0.7
행정	359.3	1.4	442.3	1.6	505.0	1.6
광업	19,099.1	72.7	21,344.7	74.8	22,743.3	74.4
기타 서비스업	1,027.8	3.9	1,043.8	3.7	1,045.7	3.4
부동산업	225.8	0.9	292.5	1.0	261.8	0.8
농업	20.3	0.08	82.2	0.3	84.4	0.3
보건	26.9	0.1	27.6	0.1	29.0	0.09
전기	53.9	0.2	82.4	0.3	84.5	0.3

자료: 몽골 통계청

- (국가별)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비중(46.1%)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영국 등이 뒤를 이음
 - 몽골 최대 광산인 Oyu Tolgoi의 최대 투자사인 Rio Tinto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동사의 투자금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을 통해 유입
 - 한국의 투자도 주로 광업 부문이 많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 순임

〈최근 3년 몽골 주요 국가별 FDI 현황〉

(단위: 백만 US\$,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26,281.8	100.0	28,521.4	100.0	30,587.4	100.0
네덜란드	10,525.2	40.0	12,693.9	44.5	14,091.9	46.1
중국	5,185.2	19.7	5,326.5	18.7	5,318.7	17.4
싱가포르	1,898.3	7.2	2,197.7	7.7	2,614.5	8.5
룩셈부르크	1,089.8	4.1	1,234.3	4.3	1,285.8	4.2
영국	618.4	2.4	702.0	2.5	1,117.1	3.6
일본	1,022.2	3.9	963.2	3.4	1,062.0	3.5
미국	671.4	2.6	680.4	2.4	677.7	2.2
호주	649.3	2.5	620.2	2.2	643.2	2.1
한국	423.5	1.6	449.6	1.6	502.6	1.6

자료: 몽골 통계청

□ 투자 진출 진입 장벽

• 부패 관행 등 공공 부문에 대한 불신이 기업 진출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

-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부패지수(CPI)상 몽골은 전체 180개국 중 121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소폭 하락(2022년 116위)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국의 對몽골 수출입 동향

• 한국과 몽골 교역규모는 2024년 사상 최대치 기록 예상

- 1990년 수교 후, 한국과 몽골 간 교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고, 2003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 2008년에 2억 달러를 돌파하고 작년에는 5억 3,922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한국의 서비스 및 유통업 프랜차이즈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재 수요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몽골의 對한국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

〈최근 5년 한국과 몽골 교역 현황〉

(단위: 천 US\$,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수출	금액	271,157	384,715	426,344	476,439	287,518
	증감률	△6.8	41.9	10.8	11.7	23.4
수입	금액	20,535	24,949	38,240	62,790	16,579
	증감률	△37.0	21.5	53.3	64.2	△45.0

자료: KITA 통계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양국 교역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부터 연속 증가세를 보여 2024년 상반기 기준 3억 40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시장 수요에 따라 2024년 교역규모는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對몽골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식품, 화장품, 의약품, 건설기계 등으로 최근 5년간 유지되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수출액은 2억 8,75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으며, 자동차 수출 비중은 16.7%, 다음으로 기호식품 12.8%, 비누 치약 및 화장품 7.1%, 건설광산기계 6.5%, 농산가공품 5.6% 등 상위 5개 품목 비중은 약 49%로 나타남

〈한국의 對몽골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US\$,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5	자동차 36,993 (△17.3)	기호식품 20,193 (△8.7)	석유제품 14,199 (△61.7)	비누치약및화장품 11,432 (△14.5)	전자응용기기 8,607 (△5.5)
2020	기호식품 39,223 (17.7)	자동차 33,058 (△14.4)	건설광산기계 19,969 (△6.5)	비누치약및화장품 16,877 (0.5)	농약및의약품 15,093 (42.4)
2021	기호식품 48,751 (24.3)	자동차 47,298 (43.1)	건설광산기계 27,927 (39.8)	비누치약및화장품 23,060 (36.6)	농약및의약품 21,178 (40.3)
2022	기호식품 68,219 (39.9)	자동차 40,396 (△14.6)	비누치약및화장품 32,260 (39.9)	농약및의약품 21,738 (2.6)	농산가공품 19,619 (23.6)
2023	자동차 74,555 (84.6)	기호식품 73,675 (8.0)	비누치약및화장품 40,423 (25.3)	농산가공품 24,338 (24.1)	건설광산기계 20,897 (34.1)
2024.상반기	자동차 48,084 (38.0)	기호식품 36,804 (△6.5)	비누치약및화장품 20,368 (4.4)	건설광산기계 18,622 (57.5)	농산가공품 16,044 (42.5)

자료: KITA 통계(MTI 3단위 기준)

- 한국의 對몽골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 의류, 축산물 등으로,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액은 1,65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 품목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국의 對몽골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US\$,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5	동제품 22,099 (1,526)	기타금속광물 12,543 (7.4)	기타비금속광물 5,682 (4.1)	의류 1,404 (13.1)	건설광산기계 1,039 (995.6)
2020	의류 8,569 (△46.6)	기타금속광물 6,152 (△35.7)	모류 1,767 (21,488)	기타비금속광물 1,082 (△66.9)	축산부산물 611 (△40.1)
2021	기타금속광물 9,428 (53.2)	의류 7,825 (△8.7)	모류 1,834 (3.8)	축산부산물 1,292 (111.2)	기타비금속광물 939 (△13.2)
2022	기타금속광물 18,364 (94.8)	의류 9,386 (20.0)	기타농산물 3,477 (0.0)	축산부산물 1,221 (△5.5)	기타비금속광물 888 (△5.5)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23	기타금속광물 28,635 (55.9)	의류 9,326 (△0.6)	금은및백금 7,085 (6,326)	기타비금속광물 4,063 (357.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693 (0.0)
2024.상반기	기타금속광물 12,148 (△33.0)	기타농산물 1,051 (△54.9)	의류 738 (△5.1)	축산부산물 611 (△24.4)	기타인쇄물 537 (129.5)

자료: KITA 통계(MTI 3단위 기준)

나. 투자 진출

□ 한-몽 직접투자(FDI) 현황

• 1994~2024.3월 한국의 對몽골 투자 누적액은 6억 1,120만 달러로 집계

- 1990년 수교 이후 1994년부터 공식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3년에는 8,126만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 신규법인수는 742개사이며, 2008년에 가장 많은 79개사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
- 광업 부문 투자 비중(33.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 순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법인수 기준으로는 도소매업 법인이 188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 또한 대기업(총액의 42%) 중심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투자 비중이 크며, 중소기업(총액의 43%)의 경우 광업 다음으로 도소매업, 부동산 순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5년 한국의 對몽골 투자 현황〉

(단위: 천 US\$, 개)

구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3월	누적
투자액	501,538	5,933	18,982	81,269	3,485	611,207
건수	1,729	38	54	61	14	1,896
신규법인수	677	17	14	27	7	74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한국의 對몽골 주요 분야별 투자 현황〉

(단위: 천 US\$)

구분	2022년	2023년	2024.3월	누적
광업	292	72,138	13	207,089
도매 및 소매업	4,094	3,644	104	100,678
건설업	227	738	0	59,622
부동산	487	180	0	58,949
정보통신업	11,323	100	105	41,794
보건업	1,092	1,437	2,723	30,825
제조업	300	400	32	27,23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300	217	309	20,300
숙박 및 음식점업	310	140	100	10,2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희소금속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희토류(전 세계 매장량의 16.8%인 3,100만 톤), 몰리브덴(매장량 7위, 생산량 9위), 텅스텐(세계 5위 부존국, 세계 3위 생산량), 주석(정확한 부존량 모름), 리튬, 바나듐 등의 희소금속도 다수 매장되어 있음
- 이차전지, 탄소중립, 4차산업 등 첨단산업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 희소금속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몽골의 광업은 기초적인 선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
- 제련시설 및 기술이 전무한 실정으로 원광 또는 정광 형태의 수출에 의존 중
- 몽골의 광업 관할 관청은 광물자원청과 원자력청이 있고, 관련 정부기관은 산업자원부, 국가전문 검사청이 있음. 광업 관련 법으로는 광물자원법, 원자력에너지법, 일반광물자원법이 있음
- 외국인 투자법 관련 신 개정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매력적인 자원을 보유함에도 현재까지 몽골 광물 투자 규모가 작은 것은 기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장벽 탓. 기존 투자자의 경우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
- 이 밖에도 낙후된 인프라 역시 운송 등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몽골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임
- 한국은 첨단, 4차산업이 발전하였으나 핵심 광물자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업 분야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처 확보가 필요한 상황. 몽골은 희소금속이 다수 부존되어 있어 협력 가능 분야 중 하나임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K-기술 확산**

-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많은 데 비해 기간 시설, 제도가공산업, 미드-다운스트림(제련/소재화) 기술 관련 분야 발전이 미흡
- 반대로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K-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 여기에는 몽골에 필요한 기간 시설 건설, 제도가공산업 기술, 미드-다운스트림 기술 등이 포함
- 몽골과의 K-기술 협력은 활발하지 않지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K-기술의 보급을 통한 협력 가능성 다대

• **(공급망) 몽골은 세계 10대 천연자원 부국으로 첨단산업 프레임 변화에 따른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중요한 국가로 경제협력 확대 필요**

- 몽골은 세계 10대 천연자원 부국으로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음. 세계은행 등은 몽골이 향후 4~6%대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또한, 이차전지, 탄소중립, 4차산업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망의 강화가 필요함
- 텅스텐, 주석, 희토류, 리튬, 몰리브덴, 바나듐 등의 희소금속이 다수 부존되어 있으나 이를 개발할 기술이 없는 몽골과 한국의 기술 협력은 상호 윈-윈 가능
- 한국의 자금과 기술로 희소금속 개발부터 가공까지 협력하여 현지 전문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기술 현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기반 육성 및 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 중국 및 러시아와 이웃해 지정학적으로도 높게 평가받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우 사태 등으로 몽골의 지정학적 위상이 점차 제고되고 있음. 미국은 몽골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양자 교류를 늘리고 있으며, 교황은 러-우 사태와 중국의 가톨릭 문제에 있어 몽골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며 몽골을 순방하기도 함. 러-우 사태로 러시아와의 교류가 약화된 가운데 몽골이 한국의 새로운 공급망이 되어줄 수 있음

※ 젊은 인구와 K-문화 인기 바탕으로 한 소비재 수출 및 유통 서비스 진출 유망
 ※ 디지털 기반 서비스 및 교역을 위한 정책 추진

1. PEST 분석

Political 정치정책	• 몽골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동시에 취하고 있는 '의원집정부제' 국가이며 현재 대통령 및 총리가 모두 인민당으로 안정적 집권체제 유지 중 • 법안 변화: 공정거래, 환경보호, 고용 법규/규제, 기업 장려책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법의 개정 진행 중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외투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예상
Economic 경제	• '2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23년 7.4%를 기록했고 '24~'25년에는 5~7%대로 전망 • 지정학적 불안정 및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24년 5월에 금리를 11%로 인하 • 광물 수요 확대 및 수출 증가로 외환보유고 안정성에 따라 환율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 코로나19 및 러-우 사태로 인플레이션이 16.9%를 기록했으나 경기 활성화에 따라 5%대의 인플레이션 기록 및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유지 예상
Social 사회문화	• 인구 약 350만 명으로 작지만 출생률 2%, 평균연령 28.5세로 매우 젊은 국가에 해당 • 생활양식의 변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 의식의 변화, 가치관, 신념 등에 따른 구매 패턴 변화 등 (환경 관심, 윤리적 문제, 소비자 운동 경향 등)
Technological 기술	• 디지털정부 확대에 이어 산업 스마트화 도입 추진 중 • 전체 가구의 약 48%가 인터넷 이용 및 스마트기기 사용 중(약 400만 명, 일부 중복) •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에 따른 핀테크 시장 성장 및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다대 • 빅데이터, AI 기술, 로봇, 자동화 등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한국 문화(K-pop, K-드라마, 음식 등), 즉 한류에 대한 높은 충성도 및 한국 기업/ 브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출 기회 높음
- 한국의 첨단 IT 기술, 특히 디지털화 및 스마트 기술 관련 분야는 몽골 정부의 디지털화 추진과 맞물려 기회가 큼
-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소비 성향이 높고 역동적인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약 점(Weakness)

-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 몽골은 인구 350만 명으로 상대적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비자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어, 일부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움
- 한국에 비해 몽골 인프라는 열악하며, 물류와 통신망 등에서 도전 과제가 많음

기 회(Opportunity)

- 몽골과 한국 간의 FTA 협정이 진행 중이며, 체결 시 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몽골 정부의 디지털화 추진과 E-Mongolia와 같은 디지털 정부 시스템 확장은 한국 IT 기술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몽골 신도시, 최초의 지하철 건설로 인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예정

위 험(Threat)

- 몽골 경제는 광산업 의존도가 높으며, 정치 상황 변화가 기업환경에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몽골의 기후와 광활한 지리적 환경은 물류 및 운영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음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국 기술과 현지 저렴한 원자재 및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업 진출	디지털 세대 소비를 집중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디지털 분야 역량을 활용한 시장 공략과 화상 교육 또는 원격 진료 등 비대면 사업 공략	디지털을 활용한 유통시장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 몽골 시장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주변국(중앙아) 진출	현지 생산 후 온라인 판매
WT 전략 (위험 대응)	• SNS 등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한 몽골 시장 진출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	디지털을 활용한 물류·유통사업 진출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프랜차이즈	• 현지 글로벌화 영향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급성장 추세 - 특히 외식업 및 유통업 진출 해외 프랜차이즈 확대 중으로 진출방안 모색 필요
의료산업	• '건강은 국가 재산' 슬로건 하에 매년 건강검진 진행 등 의료 분야 정책에 따른 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기 수요 확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수주 통한 수출 기회 창출 -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건설 장비·자재 시장 공략
유통 서비스	• 한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기로 진출 기회 다대 - 현지 유력 파트너 발굴 및 협업을 통한 시장 점유 확대
목표	소득수준 향상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및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 공략

3-1. 한류 영향으로 K-프랜차이즈 진출 및 수요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이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프랜차이즈가 유망
 - * 2023년 기준 연령별 비중: 32%(0~14세), 28%(15~34세), 21%(35~49세), 14%(50~64세), 5%(65세 이상)
- ※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외식업 매출도 증가세
 - * 외식업 매출액 증가 추이: 4%('21년)→86.3%('22년)→18%('23년)→18.8%('24.6월)
- ※ 도소매업 매출액 확대, 특히 소매업 매출액 증가세
 - * 소매업 매출액 증가 추이: 29.4%('21년)→32.8%('22년)→20.5%('23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몽골의 젊은 인구 비율 증가와 1인당 GDP 상승에 따라 고품질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증가 추세
 -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2023년에는 1인당 GDP가 약 43% 증가하여 5,668달러 기록 및 가구당 평균 소득은 25% 증가한 230만 투그릭으로 확인
- 몽골 프랜차이즈 시장 내 한국계 프랜차이즈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급성장세 유지
 - 한국의 프랜차이즈 진출은 2016년 E마트가 몽골 1호점을 오픈했으며, 이후 2018년 CU, 2021년 GS25 편의점이 진출하였고, 현재 각각 3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이외에도 TomNToms, Caffebene, Tous les Jours, Coffee Namu, MEGA Coffee, Lotteria, Mom's Touch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이미 진출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몽골 시장은 단순히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진출하기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 있어 진출 전에 현지 소비자의 성향, 문화적 특성, 경쟁 상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전략적 접근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3-2. 몽골 정부는 다양한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시장 공략 유망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몽골은 제조 기반이 약해 의료기기 수요의 전량, 의약품 수요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
 - * 건강검진이 시작된 2022년에는 의료기기 수입액이 4,456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6.6% 증가
- ※ 의료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의료 인프라 열악
 - * 부족한 의사 및 침상 수, 의약품 원자재 부족, 높은 영유아 사망률과 질병률로 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몽골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립 건강검진 역량 강화 및 매년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 몽골 정부는 2022년 5월 1일부로 국민 대상 건강검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립 병원은 물론 사립 병원도 의료기기와 장비 교체 등 사업이 진행
 - 동 프로그램으로 1년에 약 100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 및 의약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
 - 현지 수요에 따라 기업들이 건강검진 기관 및 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일본의 Fujifilm corporation이 운영하는 Nura 센터가 몽골 지점을 오픈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이 몽골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에서 진료받고 귀국한 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몽골 의료기관 확대**
 - 몽골 정부의 의료 분야 예산 부족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여 해외로의 의료관광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對한국 의료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한국의 전체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중 몽골은 3.6%의 비중으로 5위
 - * (2020년) 6,102명→ (2021년) 9,146명→ (2022년) 14,148명→ (2023년) 22,080명
 - 몽골인 환자들은 주요 진료과로 내과 통합(26%), 검진센터(11.4%), 피부과(8.4%), 산부인과(7%), 안과(6.9%) 등 순으로 확인되어 진료과 바탕으로의 의료기관 개설 및 원격 진료 서비스 등이 유망할 것으로 확인

3-3. 울란바토르시 인프라 열악한 상황, 특히 대중교통 수단 미비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몽골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도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통 체증 완화, 신도시 개발 등의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 참여가 유망함
- ※ 또한 울란바토르시 택시 및 지하철(또는 경전철) 사업 추진 또한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몽골의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
- ※ E-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은 시작과 동시에 급성장세를 보이며,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등 공유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울란바토르시는 대중교통 수단이 미비한 상황으로, 인프라 상황 대비 운행되는 자동차 수가 많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태
 - 기존에 50만 명 규모의 도시로 개발된 울란바토르시에는 현재 164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과잉 인구 거주에 따른 인프라 열악 및 부족 현상 심화
 - 특히 대중교통 문제, 무허가 택시 운송, 노후된 시내버스 운행 등으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
- 울란바토르시 남바타르(Nyambaatar) 시장은 2024년 1월 9일, 대중교통 개선 정책을 발표하며 버스 구입 및 지하철 건설 사업 등을 추진기로 함
 - 이에 따라 울란바토르시는 600대의 버스를 구입하여 노후된 버스를 교체했고, 공식 택시 산업 및 몽골 최초 지하철 건설 컨설팅 입찰을 공고하는 등 대중교통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몽골 최초 지하철 개통을 위한 컨설팅 입찰에서 한국의 국가철도공단과 도화엔지니어링·수성엔지니어링이 구성된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몽골의 지하철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한국 컨소시엄은 울란바토르 시청이 지하철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기본 설계부터 참여해 시공 계약자 선정, 시공 감리, 시험 및 시운전, 운영사 이관까지 사업 기간 내내 사업 관리 종합 업무를 담당할 예정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화장품	선정사유	• 좁고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기초화장품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관심도 • 몽골인과 한국인은 외향적으로 유사하여 한국 화장품은 몽골인들의 피부에 가장 잘 맞음 • 한류 영향으로 우호적 이미지 구축, 소비자들의 입소문도 영향
	시장동향	• 2021년부터 한국산 수입 급성장, 2023년 전년 대비 78% 수입 증가 • 소득수준 증가 및 젊은 층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로 화장품 시장 성장 중
	경쟁동향	•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며, 다음으로 일본, 폴란드, 프랑스, 러시아 등 순
	진출방안	• 시장점유율 1위 자리 공략 필요, 신규 및 프리미엄 제품 발굴,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 공략 • 현지 전문 전시회(몽골 뷰티 엑스포), 공관 협업사업(Korea week) 통한 K-Beauty 판촉 행사 참여
품목명 2		
소스 및 과자류	선정사유	• 한국 유통망(CU, GS25, 이마트)의 현지 진출 확대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 및 수요도 동반 증가세
	시장동향	• 소스 및 과자류 등의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약 1억 달러, 한류 영향으로 2023년 한국산 수입은 전년 대비 25% 증가
	경쟁동향	• 몽골은 제조 기반이 약해 생활소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가공식품은 한국, 러시아, 중국 의존도가 높음
	진출방안	• 한국계 유통망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제품 입점 확대 및 B2C 판촉 행사 추진으로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 • 건강지향적 소비 트렌드에 따라 유기농, 고품질 제품 소싱 확대로 고가 유아용 식품, 건강한 간식 등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 특성상 관련 시장 공략 필요
품목명 3		
자동차	선정사유	• 정식 택시 도입 확대 정책으로 향후 한국 중고차 수출 확대 유망
	시장동향	•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자동차 소유가 필수로, 특히 중고차 수요가 높음 • 몽골 자동차 시장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이며, 한국산은 2023년 전년 대비 225% 증가
	경쟁동향	• 현재 일본차 점유율은 48%, 신규 등록 차량의 80% 이상이 중고차로 몽골 자동차 시장은 중고차 중심임
	진출방안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차 수입 수요에 부응하고, 정부 조달사업(택시, 관용차량) 입찰 참가 • 국내 중고차 전시, 상담회 방한 바이어 초청 및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사업 통해 국내 기업과의 매칭 확대 필요
품목명 4		
커피	선정사유	• CU, GS25 등 편의점(680개), 탐앤탐스(38개), 카페베네(30개) 및 메가커피 진출(해외 첫 진출 사례)로 향후 커피 수입 급증 예상
	시장동향	• 몽골의 소득수준 향상,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커피 시장 성장 중이며, 한국산 수입은 2023년 50% 이상 증가 • 유행에 민감하고 저가형, 하이엔드형 공존이 가능한 시장
	경쟁동향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최대 커피 수입국은 말레이시아이고, 다음으로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대만 등
	진출방안	• 한국계 유통망과의 협업, 신규 제품 및 프리미엄 제품 입점 확대 및 판촉 행사

품목명 1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건강정책 시행으로 의료시설 및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 추세 • 만성적인 의료 인프라 및 병원 역량 부족으로 민간 병원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
	시장동향	• 의료 서비스 및 병원 역량 부족으로 해외로 의료관광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
	경쟁동향	• 몽골 의료산업에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높음
	진출방안	• 몽골 정부는 현지 의료 서비스 수요에 따라 병원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현지 질병 및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진료과 위주로 병원 설립이 유망
품목명 2		
콘텐츠 (문화)	선정사유	• 한류 콘텐츠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꾸준한 인기 유지
	시장동향	• OTT 이용 증가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접근성 확대
	경쟁동향	• 한국 다음으로 중국, 미국 콘텐츠들에 대한 인지도 높음
	진출방안	• SNS를 이용한 홍보 및 콘서트 등을 통한 시장 확대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
품목명 3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 한국 프랜차이즈 요식업 브랜드 중 현지 문화에 적합한 품목 선정 후 단계적인 진출 필요
	시장동향	• 유통 및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한국계 프랜차이즈가 시장을 장악했으며, 요식업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아닌 한식당이 타국 음식점 대비 훨씬 많음
	경쟁동향	•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경우 미국계 프랜차이즈 진출이 많음
	진출방안	• 한국 프랜차이즈 요식업 브랜드 중 현지 문화에 적합한 품목 선정 후 단계적인 진출 필요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전시회	2025 Beauty Expo 한국관	3월/울란바토르
	2025 몽골 의료기계 전시회 한국관	10월/울란바토르
	한국 농식품 박람회	10월/울란바토르
수출상담회	2025 CIS 종합무역사절단	4월/울란바토르
	2025 한국문화주간 연계 무역사절단	8월/울란바토르
투자 진출 컨설팅	몽골 진출 희망 기업 핀포인트 컨설팅	연중/울란바토르
통상 지원	한-몽 EPA 활용 설명회	6월/울란바토르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2026년 예산안 발표	2025.10.15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장소
Beauty expo 2025 International beauty&health expo	2025.3.7~9	Misheel Expo
Build Mongolia 2025	2025.4.25~27	Steppe Arena
Barilga.MN 2025 Construction and Housing Fair	2025.4.11~13	Misheel Expo
Mongolia Mining 2025 International mining&oil expo	2025.10.3~5	Buyant Ukhua
Mongolia Health Technology Expo 2025	2025.10	Misheel Expo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정훈	과장	울란바토르 무역관	976-7711-0140	julio@kotra.or.kr
2	Nandintsatsral	Senior Specialist	울란바토르 무역관	976-7711-0140	nandin@kotra.or.kr

2025 몽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